

궁극적 가치추구와 지상천국의미 비교

尹起鳳*

目 次	
I. 서론	III. 세계개벽과 지상천국
II. 기독교의 종말신앙	1. 세계개벽이전의 선천현실
1. 종말신앙과 그 발생배경	2. 개벽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간수행
2. 천년왕국신앙의 제양상	3. 세계개벽이후의 지상천국
3. 종말사상의 의의	IV. 결론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 '다원주의'시대라고 칭한다. 이제 인류사회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로써 표현되듯이 하나의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 종교만이 유일한 것으로 균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사회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들이 병존 또는 공존하는 종교다원주의시대인 것이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상가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종교의 배타주의적 태도가 오늘 같은 다문화, 다종교시대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시대에 살면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좀더 부드럽게 하는 조건이 된다.¹⁾

이러한 다종교시대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나름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오강남,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서의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 『기독교사상』, 1998, p.24

대로 각 종교의계율을 지키면서 최선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며, 또한 종교를 신앙하든 하지않든간에 이상적인 세상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갈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상향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장 보편화된 사상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종말 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스스로 그 이상세계를 촉구하는 천년왕국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순사상의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개벽과 지상천국건설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이상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논구할 것이다. 세계개벽과 지상천국건설에 관한 이해는 앞선 목적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목적 모두를 귀결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 이룩한 궁극적인 귀착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벽이전의 선천현실과 개벽이후의 이상향을 대립시켜서 그 명료성을 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천국건설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수행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기독교의 종말신앙

1. 종말신앙과 그 발생배경

종교가 지닌 기능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상징이 사회적,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행동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일종의 '한계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즉 종교는 행동을 특정 한계 아래 머물게 함으로써 한 사회나 개인이 통제되지 않은 일탈이나 극단적인 파동 속에서 맞이하는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²⁾ 그러나 이것이 잘못

2) 김성건, *종교와 사회*, 문경출판사, 1997, p.21

수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종교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더 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

종말사상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다. 즉, 세상적인 역사의 흐름이 끝나고 인간적인 시간이 멈추면서 선택된 자들의 구원이 초자연적,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시점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적 이념이 종말론이다. 이러한 종말 사상은 모든 종교들에 있어 왔고, 또한 종교가 생긴 초기부터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경향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특히 강했으며,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사상이 유행했던 시기들이 따로 있었다.³⁾ 그 이유는 유대-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간관 혹은 역사관, 그리고 메시아 사상때문이다.⁴⁾ 그러한 종말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성서에 많이 있다. 동시에 기독교는 미확정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 보다 그 재림을 촉구하는 운동을 일으킨 예도 있다. 그러한 운동을 종말운동 또는 말세운동이라고도 한다.

종말 신앙 가운데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천년왕국운동(Millenarian Movement)⁵⁾ 혹은 천년왕국신앙(Millenarianism 혹은 Millennialism)이다. 이 운동이나 신앙도 역시 기독교 전통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천년왕국신앙이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년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요한 계시록 20:1-7에 근거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기간동안에 의인들은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와 기쁨의 생활을 하며, 천년 후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곧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전 천년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운동이란 천년왕국신앙을 토대로 하여 천년왕국을

3)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성서연구사, 1996, p.133

4)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다,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0, p.324

5) 이 운동은 구원이 임박하고(imminent) 궁극적(ultimate)인 것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마지막 미래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믿음은 궁극적 구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늘의 도성이 지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완전한 시간의 개념은 완전한 공간의 개념을 수반하고 있다. 천년왕국운동은 집단구원(collective salvation)을 추구한다. 구원은 한 집단으로서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선택되고 예정된 집단으로 다른 이들과 구분된다.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성서연구사, 1996, p.138)

대망하면서 “전체적으로 압박한 궁극적인 집단구원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종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은 어떠한 배경속에서 태동하였는가.

천년왕국운동은 그 자체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 배경과 발전 과정도 다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종말신앙의 출현 배경에 대하여 밝혀본다.⁷⁾

종말신앙은 특별한 사회적 상황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종말 사상은 우선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전쟁이나 심한 정치적 압제 또는 내분이나 혼란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그렇다. 구약시대의 종말론적인 묵시사상은 사회의 변동이 극심하고 야훼 신앙의 위기가 닥쳐온 유다 멸망이후,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시절에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둘째로, 종말사상은 악화된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이나 불황의 상황, 그리고 대기근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때에 종말 사상이 대두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세기 최대의 자연 재앙인 흑사병에 의해서 천년왕국적 흥분이라는 최대의 파동이 일어났다.

셋째로 종말 사상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은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의 상황이다.

넷째로 종말사상은 문화적으로 가치의 혼란이나 갈등, 그리고 도덕적인 무규범 상태(아노미)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종말사상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에 대하여 기성 종교가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에 대하여 이것을 극복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능력을 기성종교가 상실할때에 종말사상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말신앙의 보편적인 형성배경을 바탕으로 천년왕국신앙의 출

6)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0, p.325

7) 이원규, 위의 책, p.331

현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년왕국신앙은 종말론의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운동이 생겨나는 배경은 앞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종말사상의 출현배경 이외에도 특수한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첫째로, 그것은 낮은 사회계층, 억압받고 박해받는 소수인들에게 주로 받아들여진다. 삶의 조건들의 축적된 비참에 대한 반응으로 천년왕국운동이 생겨난다.

둘째로, 현실에 비추어 희망없는 미래의 전망을 가질 때 생겨난다. 많은 경우 천년왕국운동은 조건의 악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비해서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한 때문에 생긴다.

셋째로, 천년왕국운동은 전통적인 집단 연대(group solidarity)가 파괴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야기될 때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중세시대에 천년왕국운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건 농촌이건 조직으로부터 배제되고 원자화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삶들이었다. 토지가 없거나 거의 없는 농민, 일상적 실업의 위협속에서 살고 있는 직인이나 미숙련 노동자 결인과 방랑객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불만을 담아내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독자적인 집단으로 묶어줄 예언자를 고대하였다.⁸⁾

넷째로, 천년왕국운동은 주로 전환의 시기에 주로 생겨난다. 그것은 근대화에 접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별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근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진보단계에 도달한 지역에서는 드물게만 나타난다.

다섯째로 천년왕국운동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은 기성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중재를 불신했을 때 민중들은 무력감은 악화되고 절망감은 증폭되었다.

결국 천년왕국운동은 정치적 불안감, 경제적 좌절감,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허무감이 사회에 팽배해 있을 때, 무력감을 느끼면서 현실에 대한 패배주의와 숙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

8) 노만 코, 천년왕국운동사,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3, p.382

감을 충족시켜주면서 확산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운동은 문제 있는 사회상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 맞물려서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이다.

2. 천년왕국신앙의 제양상

기독교내에서 종말운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역사의 매 시기마다 재림운동을 펼쳤던 것은 우연은 아닌 것이다. 사회적인 혼란의 시대에 기성 교회가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할 때마다 새하늘과 새땅을 원하는 강한 종말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외침이면서 타락하여 제대로 된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외침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천년왕국신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왕국설을 들 수 있다.

전천년왕국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다음 천년동안 이 지상 왕국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후 절정을 이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되 정복자로 와서 그의 원수를 멸하는 것이며(요한계시록19:11-16),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반기를 든 무리들을 멸하는 것이며(19:17-21),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 즉 “용 곧 옛뱀 마귀 사탄”(20:2)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 세대주의자인 스코필드는 세대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뜻의 어떤 특수한 계시에 대하여 순종하는 관점에서 인간이 시험당하는 기간”이며 각 세대마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있다.

(1) 인간무죄시대(창세기 1:28-3:6) (2) 인간 양심 시대(창4:1-14) (3) 인간 통치 시대(창8:15-11:9) (4) 인간 약속시대(창11:10-출18:27) (5)인간 율법시대(출19:1-행1:26) (6)인간은혜시대(행2:1-계19:21) (7)그리스도의 개인 통치시대(행20:1-22:20).

그러나 이미 다섯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현재 남은 두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개인 통치 시대 곧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세대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영역에서 초교파적으로 확산된 성경해석 운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는 현저하게 다른 세대가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일종의 성경 해석 체계로 정의된다. 세대주의와 가장 본질적 교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히 구분하는 교회론과 천년주의적 종말론이다.¹⁰⁾

세 번째 후천년 천년왕국설이다.

후천년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전파와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지금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는 마침내 기독교화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위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의와 평화의 긴 한 시대의 말기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다. 후천년설의 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전반적인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하게 소개된 직후에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년자들이 기대하는 천년왕국은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든 죄가 다 제거될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악들이 마침내 무시해도 좋은 만큼 축소될 것이며 또 기독교의 생활원리가 이의없이 통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기독교화 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임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사상은 17,8세기에 전성하였다.

네 번째 무천년왕국설로 설명된다.

무천년왕국설의 근본 견해는 그리스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천년왕국설이라기 보다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현된 천년왕국설 또는 시작된 종말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과 사단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적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파괴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

9) 장병호, 재림 성도와 종말 신앙, 서울:정문사, 1996, p.14

10)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두란노, 1988, p.146

11) Lotsinr Boettner, 천년왕국, p.155

에 미래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상생활을 할 때 이미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그 나라가 지상에 작동하고 있으며 미래에 있어서 완성되리라고 믿는다. 셋째, 마지막이 아직 미래에 있으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다. 넷째,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외에도 근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천년왕국신앙들도 있다. 물론 위의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8세기 후천년적 천년왕국신앙을 들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자 과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변으로부터의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17세기 영국의 자연신론(이신론, deism), 독일의 계몽주의, 자연과학과 법리학의 새로운 발전등으로 가속화 되었다. 인간의 자율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낳았고, 낙관주의적인 세계관, 자연과 보편에 대한 의존, 경제적, 정치적 불의에 대한 불만족, 신앙의 관용, 반교리주의 등으로 특징지워주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경향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의 단절을 반영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양상은 신화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럽뿐 아니라 신대륙까지 복음이 신속히 확장 되면서 중세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치하에서처럼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다.

두 번째 18세기 전천년적 천년왕국신앙이 나타난다.

종교개혁이 교리적 다툼으로 인해 여러 개의 교파로 사분오열되었고, 유럽은 계몽주의로, 신대륙에서는 청교도적 낙관주의로 인해서 후천년적인 신앙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과 신대륙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천년적 천년왕국 신앙을 피력하였다.

세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왕국신앙을 들 수 있다.

19세기가 되자 전천년설이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는 프랑스 혁

12) 이종성, 종말론 I,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pp.401-403

13)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5, p.168

명기간 동안 유럽의 정치, 사회적 제도들이 갑자기 붕괴되었고 유대인의 회개와 그 지원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건주의 운동과 대각성 운동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 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천년왕국론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각성 운동과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중심은 점차 신대륙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 시대 미국에서는 지진과 낙성등 잇따른 천연계의 징조와 함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장막 집회가 성행하였고 유능한 설교자들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관하여 강조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전천년설이 다시 부각되었다.¹⁴⁾안식교의 재림신앙의 모태가 되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운동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변화와 과학의 발달, 국가의 독립, 그리고 복음의 확산 등의 현상으로 인한 자유주의적 후천년설도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후에 사회복음운동으로 전이되어 20세기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한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의 주류형태는 전천년주의적인 근본주의 신앙이다. 극단적인 신앙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가 시대마다 사명에 걸맞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신앙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고라정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그 힘을 잃고 근대화를 진행시킬수 없었던 민족 정신들 대신에 새로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국가적 차원의 신앙 운동은 아닐지라도,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과 소외현상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했다. 기독교 본래의 종말론과 다른 사이비 종말론의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

14) 위의 책, p.360

며, 보수적 신앙노선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였다. 종교가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현재 기능적인 위치에서 역기능적인 위치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천년왕국 신앙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천년왕국신앙 자체의 특수성에 의해서 사회 변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천년왕국신앙이 이미 규정되기도 하였다.

3. 종말사상의 의의

종말론은 교리사적으로 볼 때 신학적 관심의 주요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었다. 종말론이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이후였다.¹⁵⁾ 20세기 인류가 경험한 역사의 경악들은 19세기 모든 천년왕국설적이며, 메시아적인 설계를, 종교적 형태를 가졌든지 세속적 형태를 가졌든지 간에 모두 철저히 파괴하여 버렸다는 것이다. 그 대신 모든 영역속에서 종교적 형태나 세속적 형태를 가진 묵시 사상이 대신 등장했다는 것이다. 현대의 종말론 사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19세기의 메시아적 비전과 20세기 역사의 묵시 사상적 경악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종말론적 문제들은 신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며, 역사 자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네 가지 지평을 가진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세계의 새 창조, 땅과 함께 가지는 인간의 역사, 인간적 인격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종말론은 지평들이 지닌 존재적 질서이다” 라고 본다. 그러나 인식적 질서는 사물들의 존재적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근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말론에서 개인적 희망과 함께 시작한 다음에 역사적 희망

15)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두란노, 1998, p.105

과 마지막으로 우주적 희망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화에 함께 끝을 맺고 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을 뜻한다. 성서의 역사관은 인간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이 반드시 말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절망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이다. 기독교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영적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 종말이다. 영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구원에 의해서 시작됨을 뜻하고, 육적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 희망의 포괄적 상징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상징보다 모든 사물의 새창조라는 우주의 종말론의 상징이 더 포괄적이다. 역사적 종말이 언제나 다시금 “포괄적 희망”으로 파악되고, 역사가 모든 현실의 총괄개념이 되는 것이다.

Ⅲ. 세계개벽과 지상천국

1. 세계개벽이전의 선천현실

증산은 우주를 시간적 관념으로 구분했을 때 선천과 후천이라는 관념으로서 정의내리고 있다. 선천이 상극에 따른 원과 한으로 점철된 상극의 시대라면 후천은 선과 덕으로서 살아가는 상생의 시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극의 시대로 설명되는 선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의 현실을 상극지리에 지배되어진 진멸지경의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함에 앞서 내린 선천에 대한 판단은 진멸지경으로 물고간 근본적인 이유가 각각의 개체가 품은 원한에 근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원한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전경, 예시8절)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세계가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다. 개인의 원한이 전 우주로 전이되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시각은 결국 근본적인 상극지리를 상생지리로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이 천지공사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극의 이치란 대립과 경쟁을 통해서 생존이 유지되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패했을 때 패배자는 승리한 자와의 공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극의 이치는 냉혹한 투쟁의 원리이다.¹⁶⁾ 이러한 상극의 이치는 인간사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세계에도 지배되는 원리로서 선천에서는 모든 관계가 유형무형의 대립관계로 얽혀져서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천의 한계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주는 긍정적인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문명사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회의 등장은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이 발달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자체가 악용됨으로써 우주질서를 파괴하고, 땅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말았다.¹⁷⁾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교운1장9절)

16)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창문각, 1982, p.76

17) 홍우, 동학문명, 서울:일조각, 1982, p.11

윗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마두의 役事를 근간으로 하여 현대의 과학문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神界의 영향에 의하여 신계의 문명에 기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노력 뒤에는 항상 신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상사적 접근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¹⁸⁾

한편 인간계에서 발생한 문명의 발달은 대순사상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물질문명이 인간의 교만을 조장함으로써 神道の 권위를 몰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진 기계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모든 것을 과학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자만과 방종을 양산하였으며, 문명사회의 물질만능주의적 풍조에서 기인한 윤리도덕의 타락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인간 스스로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가치기준을 상실함으로써 교만과 방종 그리고 일탈을 일삼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연의 황폐화와 神權에 대한 도전행위는 인간이 지녀야 할 참된 가치로서의 도덕을 잃어버림으로써 진멸지경으로까지 몰고가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¹⁹⁾ 이를 증산은 無道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²⁰⁾ 또한 선천의 현실이 상극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고 있는데 있다하여,²¹⁾ 인간의 마음에서만 그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잘못이 세상을 지배한 이치에

18)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행록1장54절)

19)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교법1장1절)

20)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행록5장38절)

21)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3장34절)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진실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 이러한 상극의 세계는 상호간의 대립, 투쟁, 갈등에 의해서 원한이 쌓이고, 척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³⁾ 결국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극지리에 지배되어진 현실은 선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인간수행

도통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은 지상선경세상에 대하여 접근함에 있어서 이상낙원 건설의 주체로서 인간이 나아가야 하는 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럼으로 여기서는 이상낙원건설의 주체인 인간에 한정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표를 삼고자 한다.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1장41절)

도통은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도통신과의 관계맺음속에서 각자가 닦은 바에 따라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편벽됨이나 사사로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법방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임을 나

22)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떡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3장24절)

23)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pp.415-416

타내는 것으로서²⁴⁾ 이상낙원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규정짓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지상선경이라는 이상낙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제에 대한 對越永侍의 마음으로 一心으로서 수도를 행하는데 있는 것이다.²⁵⁾

동양의 종교나 사상에서 일반적으로 修道를 한다는 것은 영원한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동양의 전통에서 본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예를 들어 神과 같은 존재가 은총으로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현세에서의 삶이 아닌 사후 세계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대부분 현세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기대를 가지고 수도를 하였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보다는 현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중국의 禪宗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무튼 수도의 목표는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현세를 떠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수도라 함은 종교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신의 내·외형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뜻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내적 자아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제반체계를 일컫기도 한다.

수도는 종교 의례중의 하나로서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행하는 의례와는 달리 자기자신을 향하여 행해지는 의례이다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수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는 심신을 침잠추밀하여 대월상제의 영시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24)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배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배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션도다.”(교운1장33절)

25) “---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고 이르셨도다.”(예시50절)

봉송한다”²⁶⁾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는 상제님의 말씀에 나의 심신을 적중토록 일심으로 행하는 데 있다. 선천의 무도한 현실을 바로 세워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수도는 바로 이같은 사명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대순지침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며,²⁷⁾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²⁸⁾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있을 뿐이며,²⁹⁾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르게 되며,³⁰⁾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立微塵)이 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道通眞境에 이르니라.³¹⁾고 하고 있으며,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³²⁾ 결국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증산은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背病’(행록5-38)이라 하여 천하가 병들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충·효·열의 올바른 실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그러나 선천의 현실은 이러한 충효열이 없음

26)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p.17-18

27) 대순지침, 37면

28) 대순지침, 37면

29) 대순지침, 37-38면

30) 대순지침, 38면

31) 대순지침, 39면

32) 대순지침, 39면

33)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30절)

으로 해서 무도의 세상이 되었으며, 천하 대.소병의 원인이 모두 無道에서 출함을 증산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⁴⁾

하나하나 닦아가는 忠孝烈의 윤리는. 안심안신을 이루고 이루고 無自欺를 바탕으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유일의 수도의 요법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도인들은 이 無道の 세상을 有道の 세상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결국 지상선경이라는 이상낙원에서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도통이라는 귀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도통이라는 것은 인성에 내재한 이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천과 인간의 합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신과 인간의 조화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³⁵⁾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도통은 선천에서처럼 특정된 일부분에 한해서 주어지는 도통이 아니라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한 것으로서 수도여하에 따라 도통을 이루게 되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 세계개벽이후의 지상천국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상사회를 꿈꿔왔다. 지상천국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는 인간의 본성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한 강력한 열망으로 나타났는데 서구인이 황금시대의 이상향인 아르카디아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나 동양인이 동방을 낙원으로 설정하여 대동사회를 신앙해 온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단 한번도 인간이 바라는 진정한 이상사회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상적 갈등과 대립의 양상만 가중시켜온 듯하다. 사회란 인간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34)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행록5-38)

35) 유승중,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대순사상논총』 제5집, 포천:대순사상학술원, 1998, pp.506-507

모여사는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느 시대에건 존재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그 나름으로의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억누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였다. 이런 식의 악순환속에서 진정한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지상천국건설의 의미는 기존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막연히 올 것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증산이 현재의 세상을 천지공사라는 행위를 통해 바꾸어 완성된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상천국건설과 세계개벽에 관한 이해는 앞선 목적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목적 모두를 귀결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 이룩한 최종 목적점이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지상천국건설은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로 이루어지는 후천선경을 가르킨다. 이 세상은 개벽과 원시반본을 따라 진법이 구현되는 이상세계인 것이다.

도통진경은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개벽으로 열리며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예시 30)

후천을 여는 개벽은 선천 개벽후에도 삼계에 계속되어온 수한과 난리의 겹재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개벽의 시대에는 병겁등이 있게 되므로 인간적 차원에서는 구천 상제에 의해 전해지는 새로운 공부를 통해 겹재를 이겨 넘어가야 한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엎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

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1장36절)

천지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상세계가 이룩된다는 것으로 개벽을 통하여 도
통된 이상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개벽은 서신이 사명하는 것으로서 만
유를 제재해 모든 이치를 모아 이루는 것으로 만물의 성숙과 멸망의 판가름
을 하는 과정이다.

한편 冤으로 점철된 진멸지경의 상극된 선천세상을 해원이념을 통하여 실
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통된 이상향 즉 지상천국건설에 있다.

신명공판(神明公判)이란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
도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므로, 상제께서도 “나는 해마(解魔)를 위주하므
로 나를 따르는 자는 복마(伏魔)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
더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으니 깊이 명심하라. (대순지침, 94면)

위의 글에서 운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마의 발동을
참고 잘 견디는 수행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룩했을 때 궁극적인 해원을 이
루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도를 통해 운수³⁶⁾를 받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의 목적이 도통임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인 해원
이란 결국 도통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세상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지위문제에 있어서 대순사상
에서는 인존관념으로 집약하고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는 선
령신의 공덕으로 태어난 존재로서³⁷⁾,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신명
계와의 유기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關係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³⁸⁾

36) 대순지침 38면에 “운수를 받는다고들 하나 그것 역시 도를 닦아 도통하는데 있
느니라”에서 운수의 궁극적인 내용이나 결과는 도통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37)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
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
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 (교법2장36절)

38)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 (교법3장35절)

이는 곧 한국의 신종교 사상의 큰 줄기를 잡고 있는 하나의 흐름인 인간 존엄성의 기본 사상³⁹⁾에 바탕한 새로운 인간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인간 이해에 대한 파격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모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던 기층 민중들에게는 자존의 질서를 재정립케 하였으며, 독자적인 사유체계의 형성을 통하여 기존의 지배질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통하여 종교적 이상세계 구현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인존의 인간관념으로 구현되는 것으로써 인존은 心·身·神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존재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天尊·地尊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주심이 투영된 小宇宙라고 정의 내림으로서 인간의 지위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인존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진경세상의 다양한 모습들 즉,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정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보기로 한다.

진경세상은 모든 분야의 진리가 하나로 통하여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표현한 말로써 단지 이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천선경건설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인류에게 다가오는 구체적 현실개념이다.⁴⁰⁾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39) 인간 존엄성의 사상은 비단 동양의 사상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사상은 아니다. 노길명은 인간 존엄성의 사상에 대하여 서구의 종교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으로서 서구 종교에서는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그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즉 신 중심적인 사상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구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예속된 존재이고, 신의 뜻이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경서원, 1996, p.42)

40)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 관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9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81)

위의 전경구절은 도통진경된 후천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경세상의 실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교법3장26절)

후천에서는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선천에서처럼 억압속의 존재가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나라,고 말씀은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 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행록1장37절)

백성의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음은 정신적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노불사하는 것은 육체적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 집마다 등대 한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당해를 신으리라,」하셨도다.” (공사1장31절)

이는 빈부의 차별이 사라진 경제적 이상이 실현된 세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지배체제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멸함으로서 그 불균형 속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던 여러 폐단들을 없애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며, 그리고 국제경제질서와 개개인의 경제력이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일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공사3장5절)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된다는 것은 지역의 경계가 없는 단일문화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신의 경지에 합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 ” (교법3장41절)

수화풍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된다는 것은 자연환경의 理想的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간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현상들이 언어의 다양화에 있다고 보고 언어를 통일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며,⁴¹⁾ 물질적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⁴²⁾

IV. 결론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는 동물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행한 노력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집단을 형성하면서 투쟁과 함께 안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서 실시되었다.

작금의 세상은 상극으로 점철된 선천세상에서 상생으로 가득찬 진정한 평

41)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고 다시 대답 하셨도다.”(교법3장40절)

42)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80절)

화시대이며 지상낙원의 시대인 후천선경으로 들어서는 때이다.

후천선경은 막연한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증산이 처결한 천지공사를 통해서 후천의 이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실현되는 현세지향적인 것이다.

천지공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상낙원을 도통진경, 후천선경, 지상천국 등의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 세계는 신인이 상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윤리도덕이 완성된 말 그대로의 이상적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낙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으로 새 세상에 집착하는 태도는 버려야만 한다.

현실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을 보이는 신앙형태는 혼란하고 개인의 정체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집착들이 심하면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모두를 파괴하고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신앙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다원현상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종교적 진리는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뿐이며 구원은 그 하나뿐인 길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물음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조리의 문제 역시 각각의 믿음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믿음에 대한 배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순간순간의 욕구로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관계를 우연적으로 보며 일을 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근거나 의미도 없이 순간의 기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전제로 해야할 때이다.

하나를 둘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

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⁴³⁾ 지상천국건설이라는 크나큰 명제는 한마음으로써 믿고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3) 대순진리회 요람 17면

【참고문헌】

전경

신약성서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서울:대순진리회교무부

기독교사상 편집부,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김근진, 종말론, 서울:민음사, 1998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6

김성건, 종교와 사회, 문경출판사, 1997

김 진, 생활속의 철학, 서울:자유사상사, 1990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9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경서원, 1996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두란노, 1988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5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오만규, 재림교회사, 서울:시조사, 1997

이상훈, 해석학적 성서이해, 서울:종로서적, 1992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0

-----,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성서연구사, 1996

이종성, 종말론 I,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장병호, 재림 성도와 종말신앙, 서울:정문사, 199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한신대학교 출판부, 1984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창문각, 1982

홍 우, 동학문명, 서울:일조각, 1982

Eldon Ladd. George, 권호덕 역, 천년왕국, 서울:성광문화사, 1980

G. Von Rad, 구약성서신학 2, 경북:분도출판사, 1989

John Calvin, 기독교 사상사, 서울:나침반, 1990

John Murre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예수교 문서선교회, 1986

J. Moltmann, 전경연 역, 정치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4

J. Moltmann, 전경연 역, 희망의 실험과 정치, 서울:종로서적, 1984

Lotsinr Boettner, 천년왕국

오강남,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서의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 『기독교사상』, 1998

유승종,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대순사상논총』 제5집, 1998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제4집, 1998

한철하,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목회작의 기록」, 『성경과 신학』 제4권, 1987